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포럼

2021년 8월 18일(수), 14:00~16:3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포럼



프로그램

2021년 8월 18일(수)

14:00~16:30

13:30~14:00	등 록
14:00~14:15	개회식
개회사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환영사	원영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축 사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14:15~15:00	발 표
발 표 1	한국 노인의 건강과 돌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주요결과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 표 2	한국 노인의 소득과 경제 및 사회활동 실태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 표 3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15:00~15:10	휴 식
15:10~16:10	토 론
좌 장	이금룡 상명대학교 교수
토 론	이윤환 아주대학교 교수 김혜령 인제대학교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김범중 중앙대학교 교수 유재언 가천대학교 교수 김영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16:10~16:25	종합토론
16:25~16:30	폐 회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포럼

목 차

개회사	vii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환영사	ix
원영희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축사	xi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발표 1	
한국 노인의 건강과 돌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주요결과	1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한국 노인의 소득과 경제 및 사회활동 실태	15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 3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29
이선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토론	39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태수 원장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분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직접 말씀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축하인사를 드리게 되어 송구하오나,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다 흥미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인실태조사는 매 3년마다 진행되는 법정조사로,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현황 및 특성, 욕구를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조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노인의 삶의 다양한 국면과 그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본 원의 이윤경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세 분의 발제자를 통해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전문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동 포럼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원영희 회장님 이하 연합회 회원분들, 기꺼이 포럼을 위해 축사를 해 주신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포럼의 좌장으로서 수고해 주시는 이금룡 교수님과, 토론에 함께해 주신 이윤환 아주대학교 교수님, 김혜령 인제대학교 교수님,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님, 김범중 중앙대학교 교수님, 유재언 가천대학교 교수님, 김영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며, 뜻깊은 논의의 장을 열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은 단일 학문이 아닌 다학제간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측면에서 오늘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와의 공동포럼이 갖는 시의성은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폭넓은 학문적 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전문가 분들과 함께 생산적이고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원영희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포럼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령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조망하는 이번 포럼이 매우 의미있는 행사라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공동 개최해 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포럼에 축사를 해 주시는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발표자, 토론자, 좌장으로 참여해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래 4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는 물론 노인집단 내 다양성의 증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노인층 진입에 따라 고령사회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령세대가 이 사회 “부양의 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함께 공감하고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들이 제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실태조사를 공신력있게 실시하여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노인의 삶과 인식변화를 조망함으로써, 곧 도래할 초고령사회 준비에 의미있는 정책 시사점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에서는 현재 <초고령사회 대응 혁신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우선 과제 도출에 연합회 회원이 중지를 모으고 있으며, 정책리포트 발간 및 정책토론회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합회가 초고령사회 대응 및 우리 사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늘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원 영 희**

축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성일입니다.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 연합회 원영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모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의 16%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와 고도 경제 성장의 역군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로 본격 진입하면서, 2025년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이제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노인세대는 하얀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있는 수동적이고 부양과 보호만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운동과 취미활동 등을 통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며, 다양한 일자리와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역시 베이비부머 세대를 비롯한 최근의 노인세대가 이전 노인세대와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 개인의 소득과 경제적 자립성도 높아졌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큰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취미와 여가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전에 비해 정보화 역량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노인세대가 여전히 사회의 주역으로서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 일자리와 사회활동, 주거와 돌봄 등 삶의 전 영역에서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인실태조사는 우리사회 어르신들의 삶의 변화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모쪼록 오늘 마련된 포럼이 노인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풍성한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을 준비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양 성 일

발표 1

한국 노인의 건강과 돌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주요결과

이윤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의 건강과 돌봄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 주요 결과-

2021. 8. 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운경

목 차

I	노인실태조사 개요	3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9
III	조사결과의 함의	19

I. 노인실태조사 개요

I. 조사개요

PART.01

노인실태조사 실시 근거

- 노인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2007년 법제화 이후 2008년부터 3년주기로 수행

- (1차) 2008년, (2차) 2011년, (3차) 2014년, (4차) 2017년, (5차) 2020년

* 법정조사 이전 조사 : 1994년(보사연), 1998년(보사연), 2004년(보건복지부 · 보건사회연구원)

구분	1994년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조사명칭	노인생활실태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조사기간	4월 4일 ~ 5월 5일(32일)	4월 13일 ~ 5월 31일(49일)	6월 28일 ~ 9월 10일(75일간)	8월 11일 ~ 09.1월 10일 (5개월간)	8. 30 ~ 11. 29 (3개월간)	6. 11 ~ 9. 4 (3개월간)	6. 8 ~ 8. 28
조사대상	만 60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이상	만 60세 이상	2008년 기준 만 60세 이상 (2011년 기준 만 63세 이상)	만 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2,058명	2,535명	3,278명	15,146명	11,542명 (65세 이상 10,675명 포함)	10,451명	10,299명
수행기관	보사연	보사연	보사연 보건복지부	계명대산학협력단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조사성격	횡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종단조사	종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횡단조사
	전국통계	전국통계	전국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전국 및 시도통계
설문지 종류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노인조사표	가구조사표 동거지녀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노인조사표
통계승인	통계공표승인번호 331-03	통계공표승인번호 09807	통계승인번호 33105	통계승인번호 117071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통계승인번호 117071 변경승인

I. 조사개요

PART.01

▶ 노인실태조사 실시 목적

- 노인의 생활 현황과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현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정책 마련의 기초자료 제공
- 시계열적 자료 축적을 통해 노인의 특성 변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변화하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응하는 노인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

▶ 2020년 조사 설계 및 실시

- (모집단) 인구총조사 기준 일반주거지(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제외) 거주 65세 이상 노인
- (표본 및 조사대상) 시·도 산출 가능한 표본추출 방법에 따라 969개 조사구(인구총조사 표본 기준)
 - 최종 10,097명(대리응답 167명 포함) 조사 완료
- (조사방법) 조사원에 의한 1:1 대면 면접조사 수행
- (조사기간) 2020년 9월 14일~11월 20일
- (국가통계승인 및 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통계변경승인 완료(승인번호 제11707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제2020-36호)
- (2020년 조사 특수성) 코로나-19로 인한 면접조사에 대한 거부 등으로 조사의 어려움

5

I. 조사개요

PART.01

▶ 2020년 조사 문항 구성 방향

1. 연속성: 시계열 비교 가능하도록 내용 유지
2. 노인 특성,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한 조사문항 수정 보완
3. 새로운 정책적 관심 내용에 대한 조사문항 구성: 웰다잉, 고령친화 환경, 서비스 등
4. 조사 부담 축소를 위한 활용도 낮은 문항에 대한 삭제 및 수정

▶ 조사문항 의견 수렴

1. 2017년 조사자료 이용자 의견수렴: 데이터 이용자 중 23인 응답
2. 전문가 의견수렴: 총 28명 (노년학자 및 정책연구자 등)
3. 보건복지부 의견 수렴

6

I. 조사개요

PART.01

▶ 2020년 조사 문항 구성

영역	항목구성		
A. 가구일반사항	-가구주와의 관계 -대리응답이유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취업여부 등	-응답노인과의 관계 -가구원 수 및 가구형태 등	-노인조사대상확인
B. 건강 상태와 건강행태	-평소건강상태 -의료기관이용 -흡연, 음주, 운동 -식사서비스이용	-만성질환(진단, 치료) -우울 -신체상태 -건강검진	-복용 의약품 수 -영양관리 -병원이용
C. 기능상태와 간병수발	-시력, 청력, 씹기 -돌봄형태 - 장애등급	-허약 -도움충분도	-IADL, ADL -장기요양이용
* 인지기능	-MMSE-DS		
D. 여가 및 사회활동	-여가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향후희망활동 -정보화기기 발달에 따른 불편함	-평생학습 -전자기기이용 -여가시설이용현황	-사회참여 -종교
E. 경제활동	-현재 경제활동상태(종류, 내용, 지위, 유형, 근로시간, 소득, 종사기간, 만족도 등) -최장기직업 특성(종류, 내용, 지위, 유형, 근로시간, 소득, 종사기간, 만족도 등) -향후근로희망(이유, 근로시간, 소득, 구직노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경험여부, 참여유형, 희망유형)		

I. 조사개요

PART.01

▶ 2020년 조사 문항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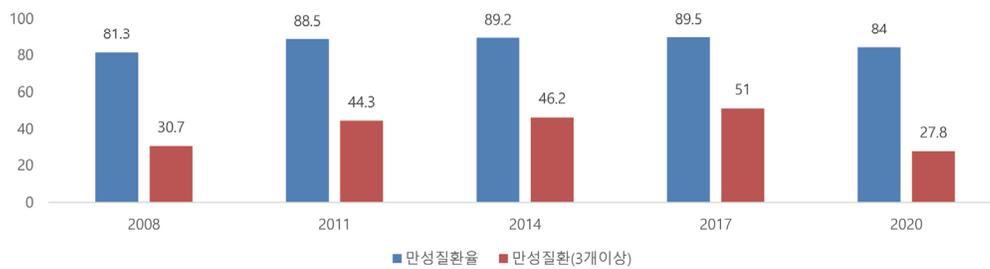
영역	항목구성		
F. 가족 및 사회관계	-비동거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노후생활비마련방법 -형제자매와의 관계	-자녀와의 갈등 경험 -독거가구 특성 -친구이웃지인 관계	-손자녀와의 관계 -자녀동거이유 및 특성
G. 가족간 도움의 교환	-자녀, 부모, 배우자와의 부양교환 -손자녀 돌봄		-비용지불 부담 방법
H. 생활환경과 노후생활	-주거현황 및 상태 -편의시설까지 거리 -노인연령기준 인식 -낙상 -죽음준비 -자살	-선호하는 거주형태 -외출시 교통수단 -삶의만족도 -범죄피해 -장례방식 -노인복지정책에 대한인식	-선호하는 재가서비스 -운전 -노인 차별, 존중 -학대경험 -연명의료, 성년후견제도
J. 경제상태	-월평균 지출액 -주거비지출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부담되는 지출항목	-연간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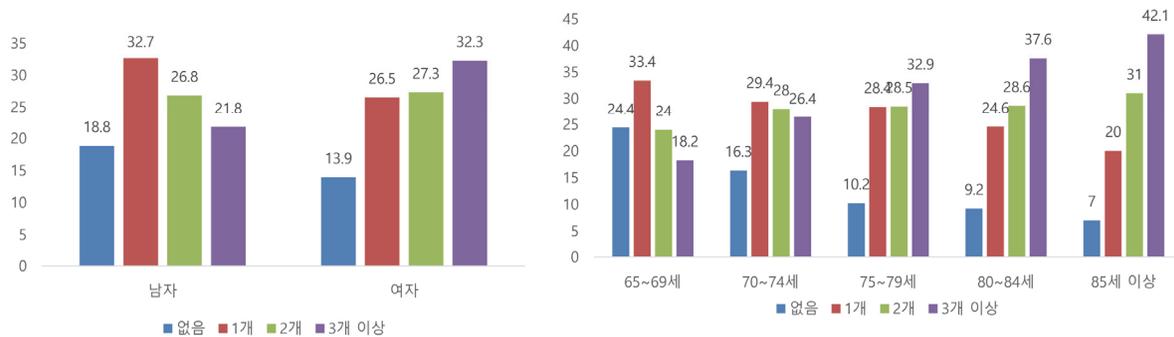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PART.02

1 만성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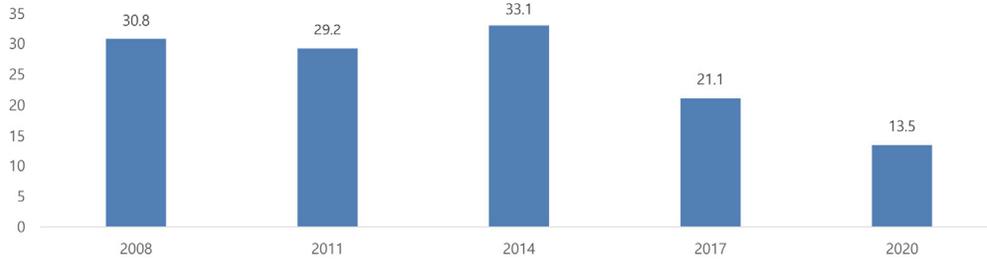
❖ 2020년 : 성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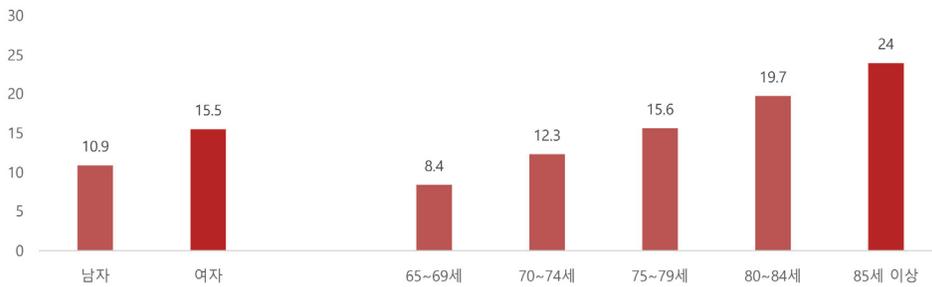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PART.02

2 우울증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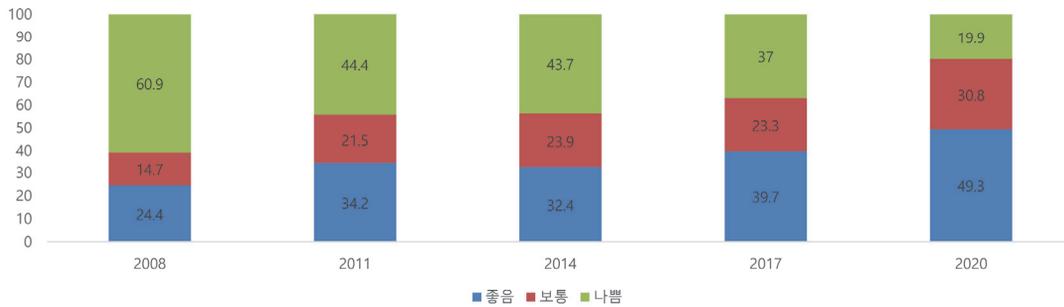
❖ 2020년 : 성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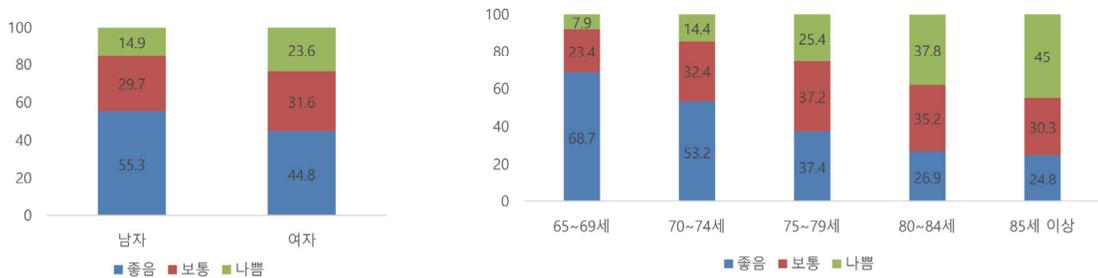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PART.02

3 주관적 건강상태



❖ 2020년 : 성 / 연령별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PART.02

4 건강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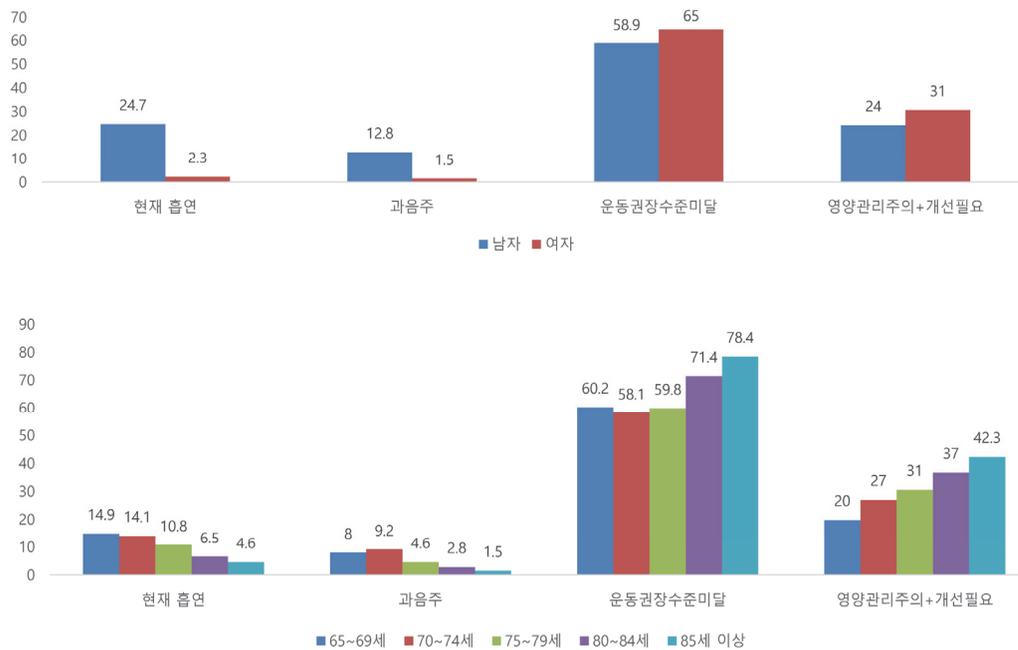


13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PART.02

4 건강행태 ❖ 2020년: 성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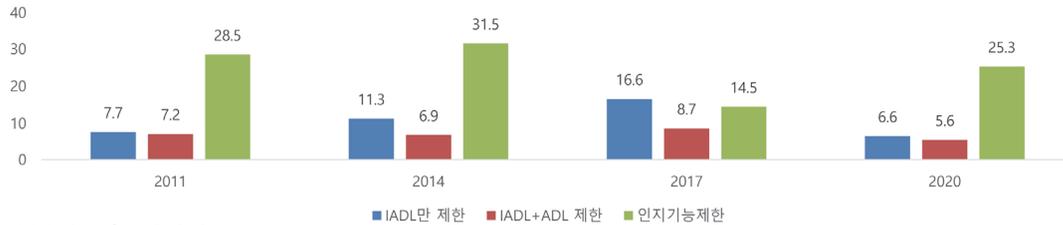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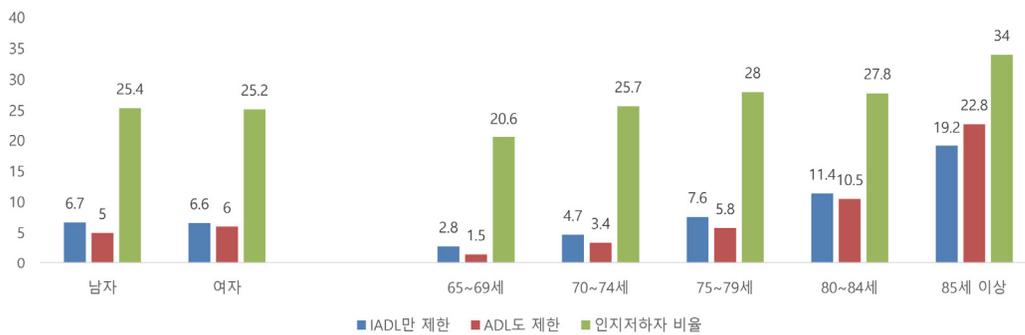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PART.02

5 일상생활수행능력 및 인지기능



❖ 2020년 : 성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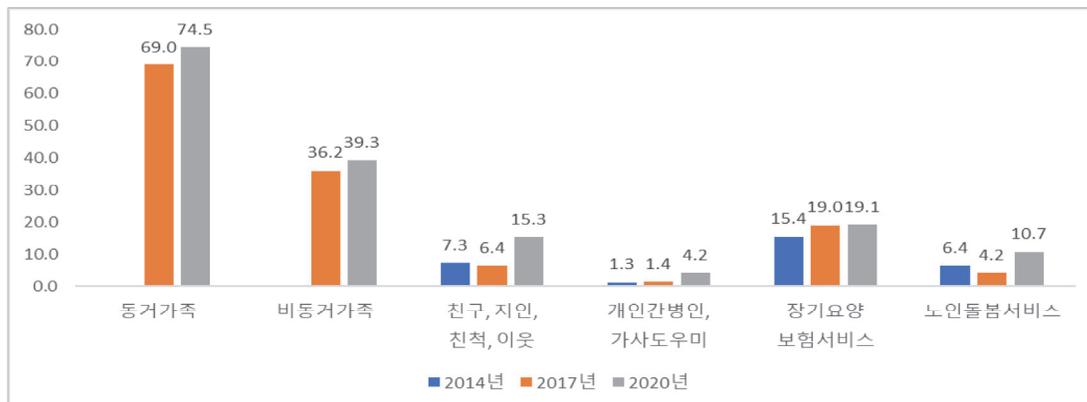
15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PART.02

6 돌봄현황

- ADL/IADL 1개 이상 제한자의 돌봄 제공자&서비스(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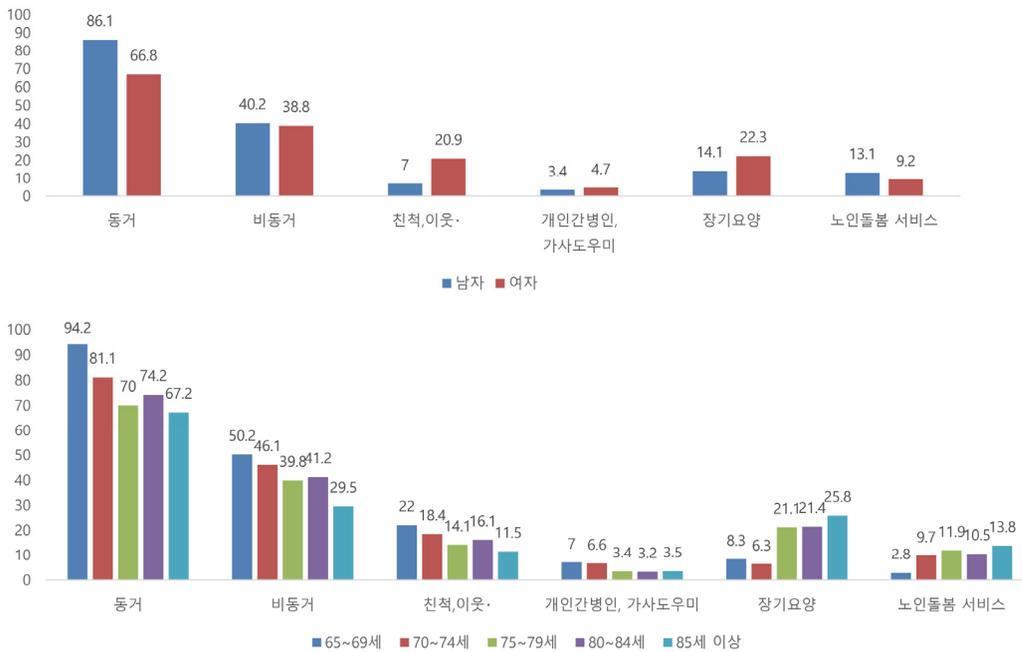


16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PART.02

6 돌봄현황 · ADL/IADL 1개 이상 제한자의 돌봄 제공자 & 서비스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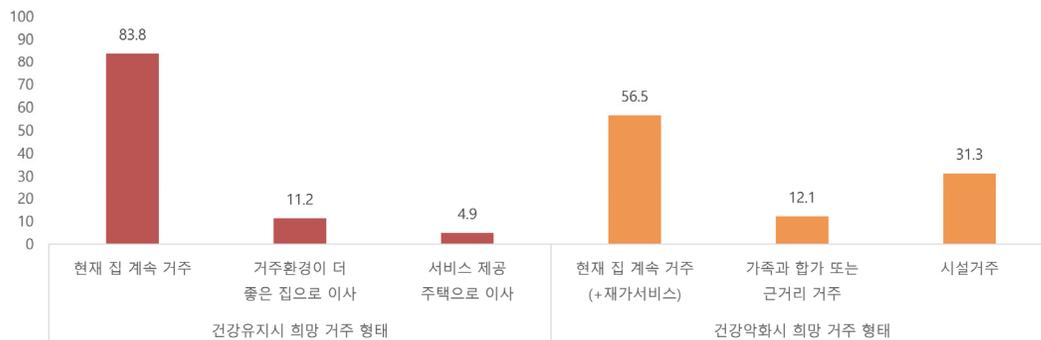


17

II. 노인의 건강 및 돌봄 실태

PART.02

7 건강상태에 따른 희망 거주 형태



18

Ⅲ. 조사결과의 함의

Ⅲ. 조사결과의 함의

PART.03

▶ 조사결과의 함의

1. 전반적 노인의 건강상태 과거에 비해 호전 :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우울증상 등
 - ▶ 건강한 노년기 연장을 위한 예방 정책 강화 : 노인의 건강상태별(건강/허약/장기요양) 건강 예방정책
2. 연령에 따른 건강 상태의 차이 : 고연령에서 건강 상태 악화 (주관적 건강상태 : 75세 이후 1/4 나쁘다라고 응답)
 - ▶ 후기고령자 증가에 대비한 보건의료 및 사회적 대응 : 웰다잉 정책 등
3. 건강 취약 집단 : 고연령의 여성의 건강상태와 건강행태(운동, 영양) 불건강
 - ▶ 고연령 여성의 지역에서의 운동, 식사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4. 장기요양서비스 등 노인돌봄에서의 공적서비스 일반화 : 고연령일수록 외부 서비스 높은 이용율
 - ▶ 의료 및 장기요양, 지역사회 돌봄 등 공적 서비스 제공 체계의 정비 : 보장성 & 제도의 지속가능성 목표
5. 노년기 집에서 계속 거주 (Aging in place : AIP)에 대한 높은 욕구
 - ▶ AIP를 위한 돌봄제도 및 의료, 주택 및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서의 “고령친화성”확보 필요

감사합니다

발표 2

한국 노인의 소득과 경제 및 사회활동 실태

김세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노인의 소득과 경제 및 사회활동 실태

2021.8.18(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부연구위원

목 차

I	개요	3
II	노인의 경제상태	4
III	노인의 경제활동	9
IV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13
V	결론 및 제언	20

I. 개요

PART.01

▶ 한국 노인의 경제상태 및 사회참여 분석 틀

- **(변화)** 노인의 변화에 대한 시계열 비교를 위해
노인실태조사 법제화 이후 시점인 2008년~2020년의 항목별 변화 검토
- 다만, 측정단위 또는 내용의 변화가 있을 경우 시계열 비교에서 제외 또는 가능 연도부터 진행
- **(연령별 비교)** 노인 집단 내 다양성 확인을 위해 2020년 결과를 중심으로 연령별 비교
- 노인 집단 내 차이를 보기 위한 다양한 변인들이 있으나, 노화의 과정을 고려하여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함



3

II. 노인의 경제상태

PART.02

▶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 증가(소득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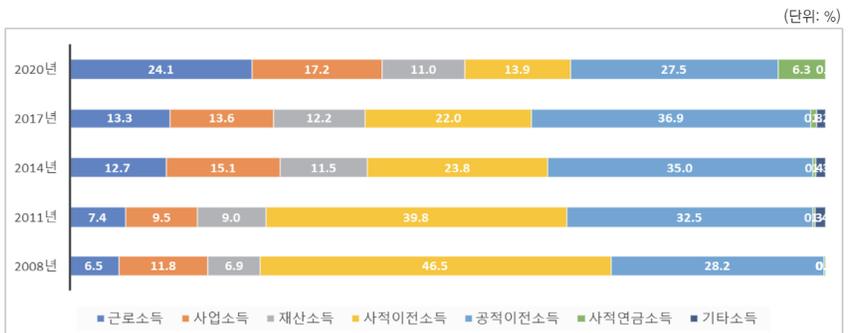
- **(소득 증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은 2008년 700만원→2020년 1,588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함
- **(소득 차원의 경제적 자립성 증가)** 노인 개인의 기여로 인한 소득(근로·사업·재산소득)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사적이전소득은 계속적 감소세를 보임
- 전체 소득 중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은 27.5%로 여전히 가장 높음

2014년 이후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노인 개인의 자립성의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의 성숙에 따른 결과로 보임

[그림 1] 노인 개인의 소득 변화



[그림 2] 노인 개인의 소득 구성비



4

II. 노인의 경제상태

PART.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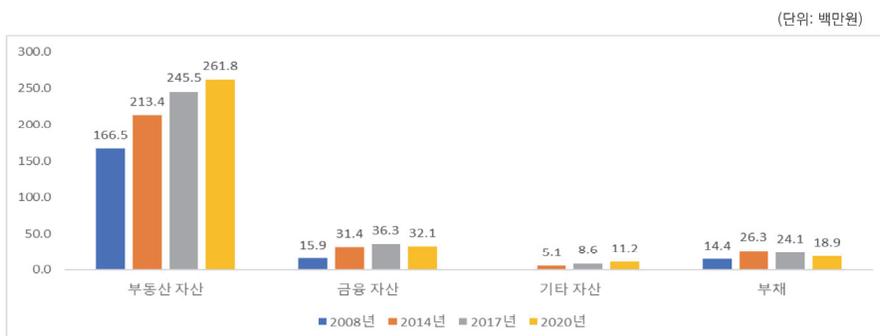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 증가(자산 및 부채 차원)

- **(자산 증가)** 노인 가구의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은 2014년 이후 증가(금융자산은 2017년 대비 감소)
- **(부채 감소)** 2014년 이후 부채는 계속적으로 감소

* 2011년은 노인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및 부채만 질문하여 직접 비교 어려움

자산은 증가하고 부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소득 뿐 아니라 자산에서도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증가한 경향을 보임

[그림 3] 노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변화



5

II. 노인의 경제상태

PART.02

노인 집단 내 높은 수준의 경제상태 차이(소득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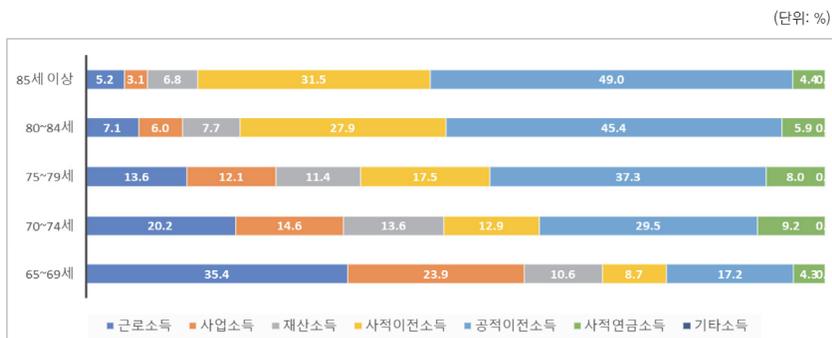
- **(소득액)** 85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에게 비해 65~69세의 전기 노인의 소득은 약 2.5배 많음
- **(소득구성비)** 65~69세는 소득 중 자력에 의한 소득(근로+사업+재산)이 69.9%로 높은 반면, 85세 이상은 외부에 의한 소득(사적 및 공적이전소득)이 80.5%로 높음
- 85세 이상의 경우 사적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접근 필요

노인의 소득 차원에서 경제적 자립성이 증가하였으나, 노인 집단 내에서의 소득수준 차이가 크며,
특히나 80세 이상의 후기노인들은 여전히 의존적 경향이 높은 특성을 보임

[그림 4] 노인 연령별 소득 수준



[그림 5] 노인 연령별 개인의 소득 구성비



6

II. 노인의 경제상태

PART.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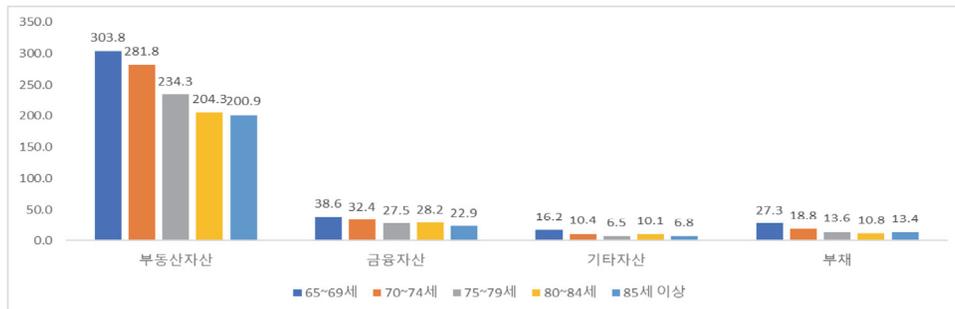
노인 집단 내 높은 수준의 경제상태 차이(자산 및 부채 차원)

- (자산)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이 적은 경향을 보이며, 부동산 자산에서의 연령별 차이가 가장 큼
- (부채) 부채 역시 연령이 높을수록 적은 경향을 보임

노인 집단 내 연령별 자산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자산과 부채가 모두 높음

[그림 6] 노인 가구의 자산 및 부채 변화

(단위: 백만원)



7

II. 노인의 경제상태

PART.02

노인 가구 내 지출액 증가 및 부담되는 지출항목

- (지출액) 가구 내 월 평균 지출액은 계속적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감소. 연령이 낮은 집단에서 높음
- (지출부담항목) 2017년까지는 보건의료비와 주거관련 비용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 식비 부담이 높음
고연령 집단에서 보건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부담이 없다는 비율 높음

지출부담항목의 변화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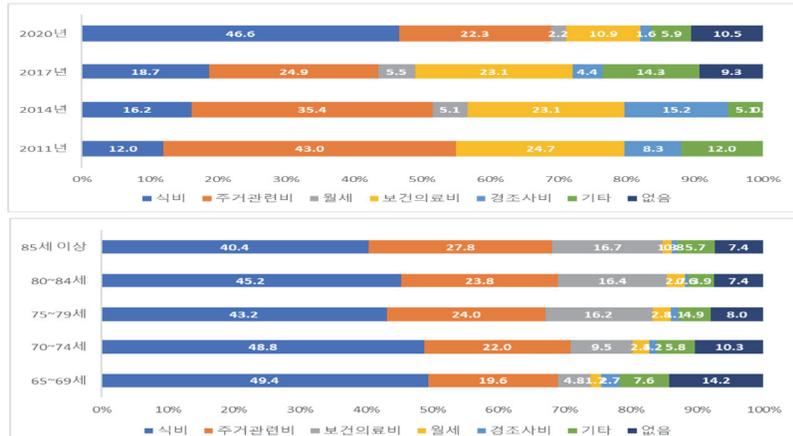
저연령 노인의 경우 지출액은 많으나 부담항목 없음의 비율이 높아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음

[그림 7]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지출액(단위: 만원)



[그림 8] 노인 가구의 지출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

(단위: %)



III. 노인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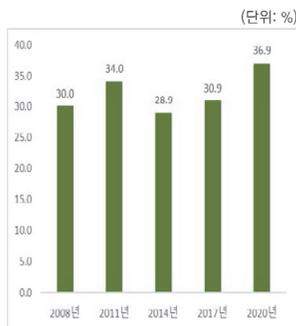
PART.03

▶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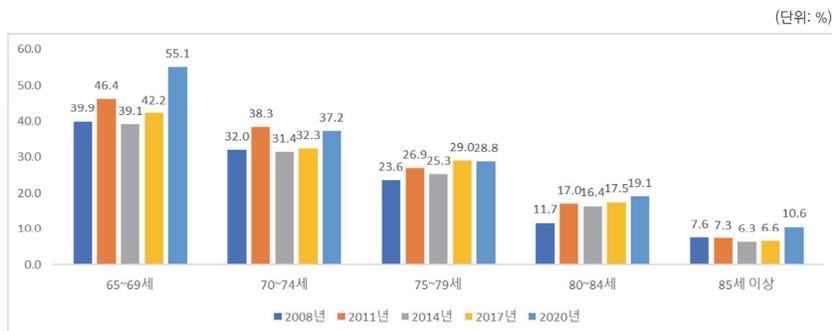
- **(변화)**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이후 등락을 보이나, 2014년 이후 계속적 증가세를 보임
* 통계청(2020) 고령자통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31.1%(2014)→30.6%(2017)→32.9%(2019)
- **(연령별 차이)** 65~69세의 참여율은 55.1%로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으며,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임

노인의 경제활동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며, 특히나 65~69세 연령군에서의 경제활동 비율이 매우 높음

[그림 9]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그림 10] 노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율 변화



III. 노인의 경제활동

PART.03

▶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 지속

- **(변화)** 소득(생계비 및 용돈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의 비율은 2008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가장 높음 그 외 2020년 결과에서는 건강유지, 친교사교, 능력발휘의 비율이 타 연도에 비해 높음
- **(연령별 차이)**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은 75~79세의 비율이 가장 높으며, 건강유지는 85세 이상이 가장 높음 능력발휘를 위한 경제활동은 연령이 적을수록 높음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지만,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연령군별 경제활동 이유 분포 상이함

[그림 11] 노인의 경제활동 이유 변화



[그림 12] 노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이유



III. 노인의 경제활동

PART.03

고령자의 종사직종 다양화

- (변화) 농어업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며, 단순노무직의 비율 계속 증가
그 외 종사직종의 비율도 계속 증가하며, 2020년 서비스 근로자와 고위임직원의 증가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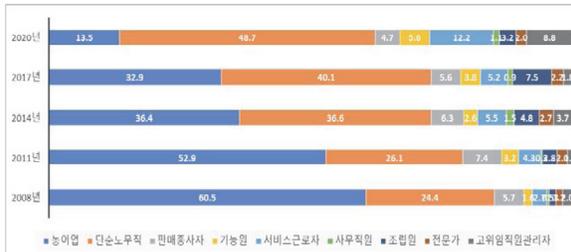
* 통계청(2020) 고령자통계.
관리자 및 전문가: 5.5% / 사무종사자: 3.0% / 서비스 판매종사자: 17.7% / 농림어업속련종사자: 24.6% / 기능원: 13.5% / 단순노무 35.8%

- (연령별 차이) 65~69세 연령군은 종사직종이 매우 다양한 특성을 보이며, 타 연령군과 큰 차이를 보임

노인의 경제활동 종사직종은 다양화되고 있으며, 65~69세 연령군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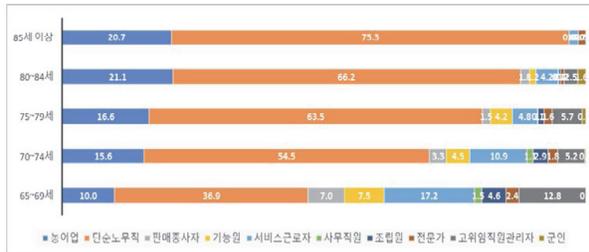
[그림 13] 노인의 경제활동 종사직종 변화

(단위: %)



[그림 14] 노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종사직종

(단위: %)



11

III. 노인의 경제활동

PART.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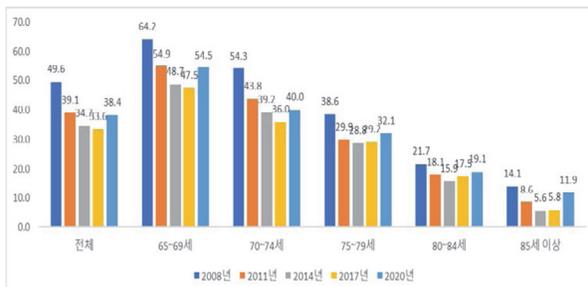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 변화

- (변화)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은 2008년 이후 계속 감소하였으나, 2020년 38.4%로 증가
2014년 이후 소득에 따른 근로희망의 비율은 감소하며, 건강유지와 친교사교 증가
- (연령별 차이) 전반적으로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이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특성을 보임
65~79세에서는 계속적으로 감소경향을 보였으나, 2020년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은 타년도와 달리 2020년 증가하였으며,
타년도에 비해 소득에 따른 이유의 비율은 적고, 건강 유지를 위한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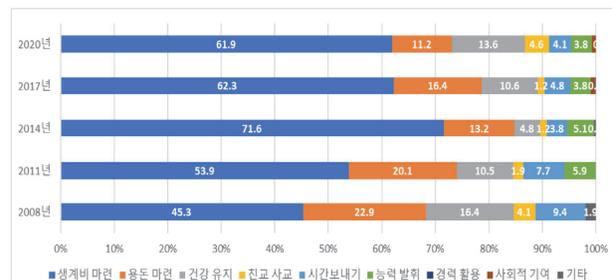
[그림 15] 노인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여 희망률 변화

(단위: %)



[그림 16]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 희망 이유 변화

(단위: %)



12

IV.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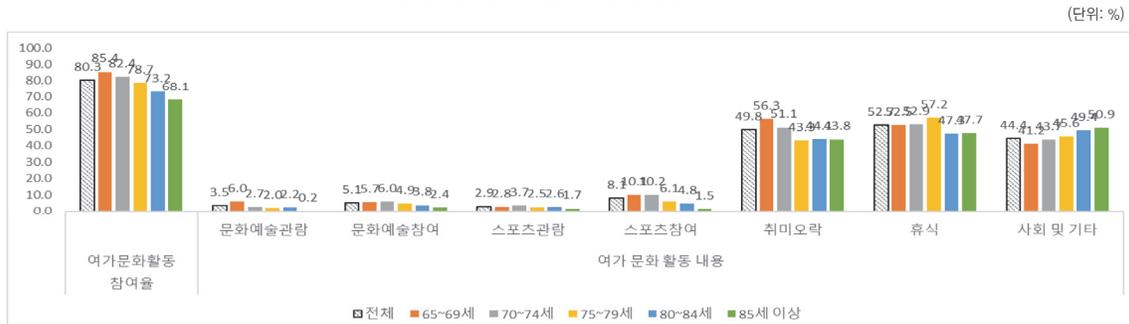
PART.04

노인 집단 내 여가활동 형태 상이

- **(참여율)** 노인의 80.3%가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미오락과 휴식 및 사회 및 기타 활동 비율 높음
* 2017년 이전 조사에서는 여가문화활동의 정의가 상이하여 시계열 비교는 어려움
- **(연령별 차이)** 연령이 낮을수록 여가활동 참여율은 높으며, 연령이 낮은 집단의 적극적 여가활동(문화예술관람 및 참여, 스포츠 관람 및 참여, 취미오락)의 비율이 높음

여가문화활동의 상당수가 휴식과 사회 및 기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

[그림 17] 노인의 연령별 여가활동 형태



13

IV.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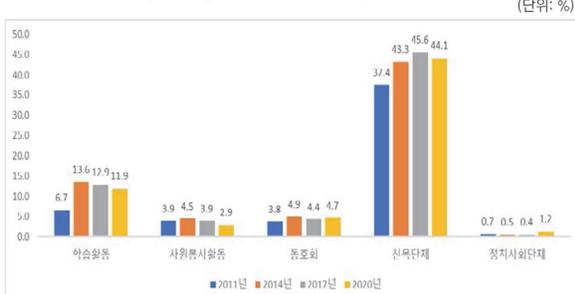
PART.04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사회참여 형태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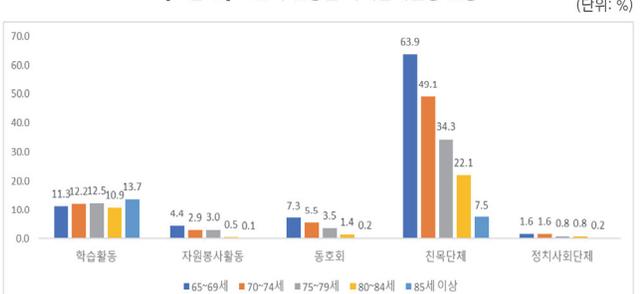
- **(변화)** 사회참여활동 비율은 2008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20년 전반적으로 감소
- 정치사회단체 참여율의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연령별 차이)** 학습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참여활동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이며, 친목단체활동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시계열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연령별 사회참여활동 참여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
2020년 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친목단체 활동 등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18]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변화



[그림 19] 노인의 연령별 사회참여활동 현황



14

IV.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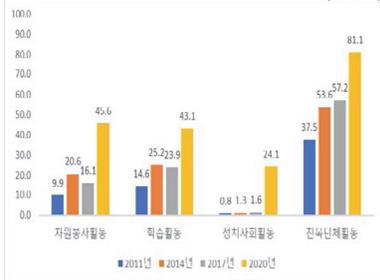
PART.04

노인 연령에 따른 희망하는 사회참여 형태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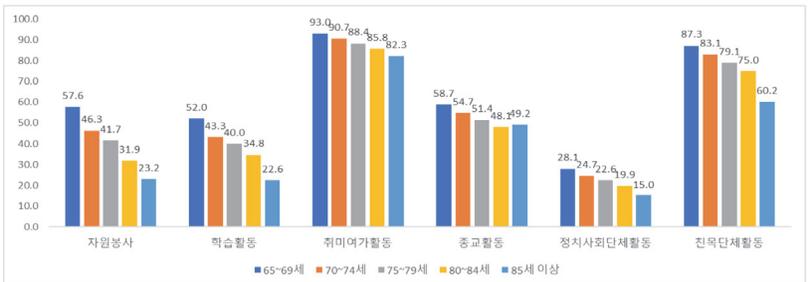
- **(변화)** 사회참여활동 희망률은 타년도에 비해 2020년 매우 높은 형태를 보이며, 특히 정치사회활동 희망률 급증
자원봉사활동과 학습활동 희망률은 2017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증가경향을 보임
* 종교활동, 취미여가활동은 질문 형태가 상이하여 시계열 비교가 어려움
- **(연령별 차이)** 학습활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참여활동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이며, 친목단체활동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시계열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연령별 사회참여활동 참여율 차이가 크게 나타남
2020년 조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친목단체 활동 등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20] 노인의 사회참여활동별 희망 의향 변화 (단위: %)



[그림 21] 노인의 연령에 따른 사회참여활동별 희망 의향 (단위: %)



15

IV.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PART.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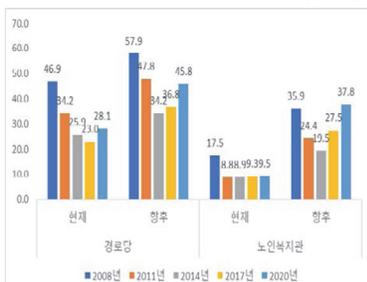
노인 여가문화시설 이용 욕구의 다양화

- **(변화)** 경로당 이용률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증가한 반면, 노인복지관은 2011년 이후 유사 비율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이용 의향은 2014년 이후 증가세를 보임
* 경로당, 노인복지관 외의 시설은 2017년 이후 조사되어 시계열 비교 어려움
- **(연령별 차이)** 경로당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재 이용률과 이용 의향 모두 증가
노인복지관 현재 이용률은 80~84세가 가장 높은 반면, 이용 의향은 75~79세가 높음
복지관, 노인교실 75~79세의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이용 의향이 높음
공공 및 민간여가문화시설 현재 이용률과 향후 이용 의향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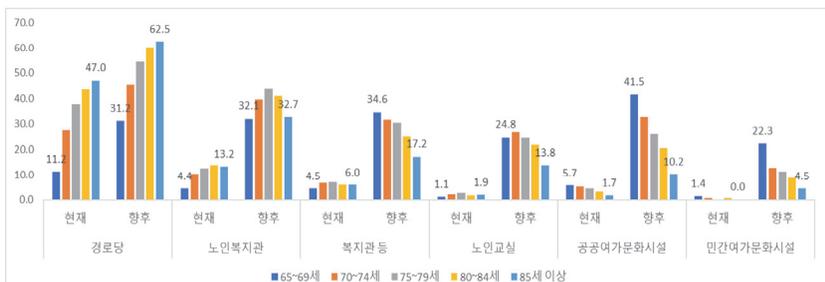
노인 집단 내 여가문화시설 이용 욕구 다양화

경로당-후기노인/노인복지관 등의 여가복지시설-중기노인/공공 및 민간여가문화시설-전기노인 중심 이용

[그림 22] 노인의 여가문화시설 이용률 및 이용 의향 변화 (단위: %)



[그림 23] 노인의 연령별 여가문화시설 이용률 및 이용 의향 (단위: %)



IV.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PART.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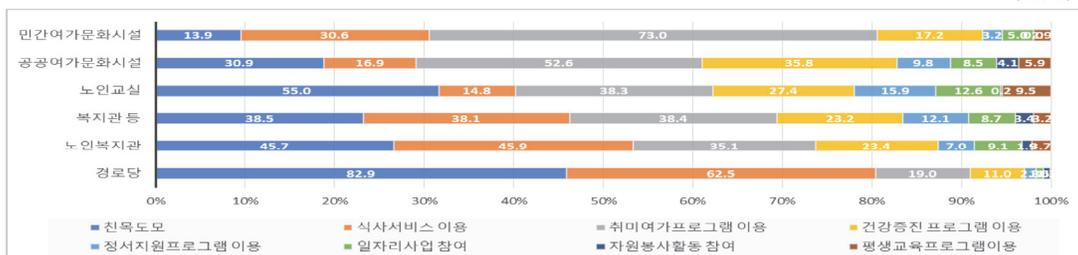
▶ 여가문화시설 인프라별 이용 목적 상이

- (경로당) 친목도모와 식사서비스 이용이 주된 이용 목적
- (노인복지관 및 기타 복지관) 복지기관 관련 인프라는 식사, 친목도모, 프로그램 이용이 비교적 균형적이며, 지역 내 복합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노인교실) 친목도모와 각종 프로그램 이용이 주된 이용 목적
- (공공 및 민간 여가문화시설) 프로그램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공공여가문화시설은 건강증진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높은 반면, 민간여가문화시설은 취미여가프로그램 이용의 비율이 높음

여가문화시설 종류에 따라 주된 서비스 이용 목적이 상이

경로당은 지역 밀착형 여가시설, 노인복지관은 지역 내 종합적 서비스 제공 시설로서의 역할 수행

[그림 24] 노인의 연령별 여가문화시설 이용률 및 이용 의향 (단위: %)



17

IV.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PART.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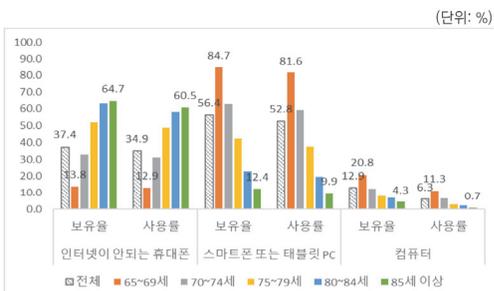
▶ 연령에 따른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 격차

- (보유율 및 사용률) 인터넷이 안되는 휴대폰은 고연령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은 반면, 스마트폰·태블릿PC·컴퓨터는 저연령 노인의 보유율과 사용률이 높음
- 65~69세의 경우 80% 이상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령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남
- (활용능력) 문자 보내고 받기와 같은 간단한 수준의 활용 비율은 높으며, 65~69세는 대부분 활용가능
- 65~69세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85세 이상은 문자기능 외에는 10% 미만만이 기능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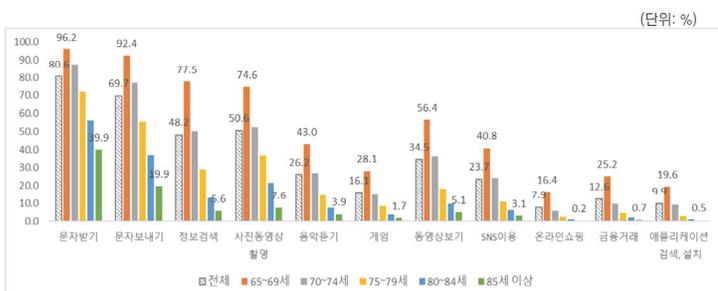
65~69세 연령군은 70세 이상과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에서 높은 수준의 차이를 보임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한 다각적 차원에서의 개입 필요

[그림 25]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기기 보유 및 사용률 (단위: %)



[그림 26]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 (단위: %)



18

IV. 노인의 여가 및 사회참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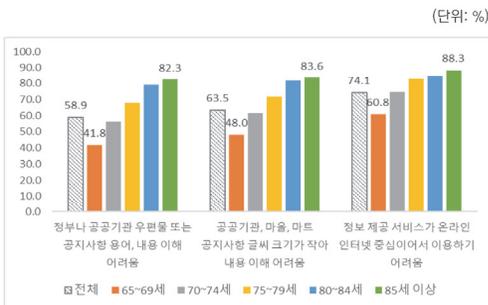
PART.04

▶ 정보화에 따른 일상생활의 불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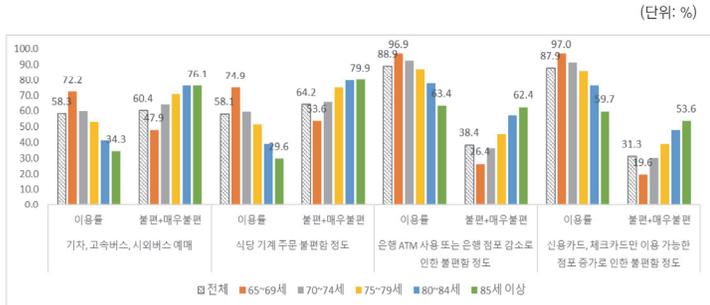
- **(정보 이용 어려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이해와 이용의 어려움 증가
 - 인터넷 중심의 정보제공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기기 이용의 불편함)** 연령이 높을수록 이용률은 낮고, 정보화 기기 이용에 있어 불편함의 비율을 증가함
 - 은행 이용 또는 신용카드 이용의 경우 시행된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상당수 적응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교통수단 예매 및 키오스크 이용의 경우 이용률에서 연령별 차이가 높고 저연령 노인층도 이용률이 70%정도로 높지 않음

정보화 된 사회 체계 안에서 노인은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으며, 집단 내 차이가 큼 또한 각 기능상태별 활용 수준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대응방안 마련 필요

[그림 27] 노인의 연령별 생활에 필요한 정보 이용 어려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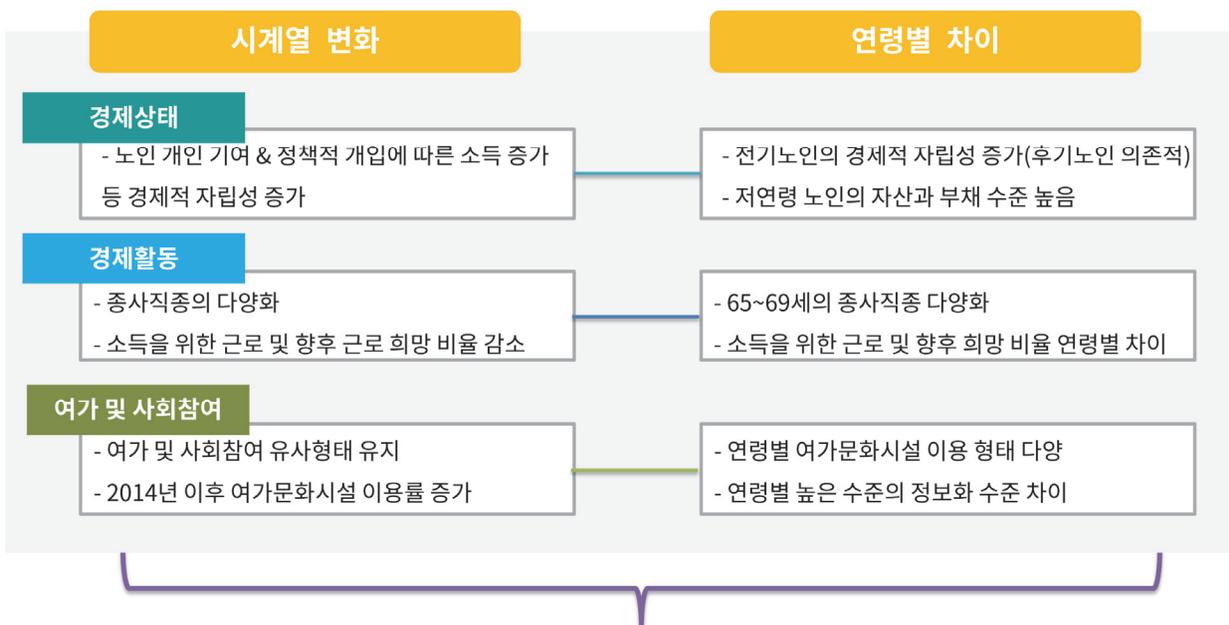
[그림 28] 노인의 연령별 정보화 기기 이용의 불편함 차이



19

V. 결론 및 제언

PART.05



전반적으로 노인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 노인 집단 내 특성 및 욕구가 **다양화되어 이를 고려한 정책개입 필요**

20

감사합니다

발표 3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선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이 선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목 차

I	분석 개요	1
II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형태	2
III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와의 접촉 실태	4
IV	노인의 부양 교환 실태	7
V	노인의 사회적 관계 관련 가치관	9
VI	결과 요약	13

I. 분석 개요

PART.01

1. 분석 목적

- **가족 및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삶의 질에 근간으로 위치
- 콘보이 모델(Convoy model)에 따르면,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는 관계망 유대 정도에 따라서 위치**
 ... 동심원 중심에서 외부로 갈수록 **배우자, 자녀, 친인척, 친구 및 이웃** 등이 위치
 ... 관계망은 단순히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의미를 넘어 일상생활 유지 및 이후 삶의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 따라서 노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있는 타자들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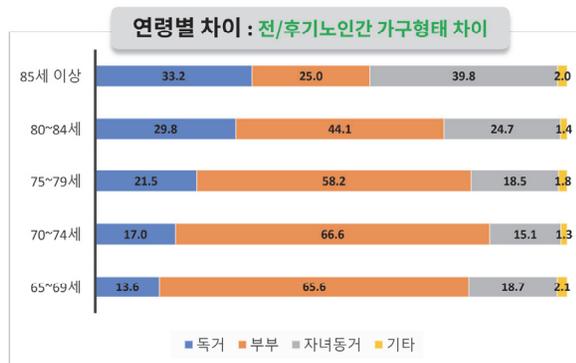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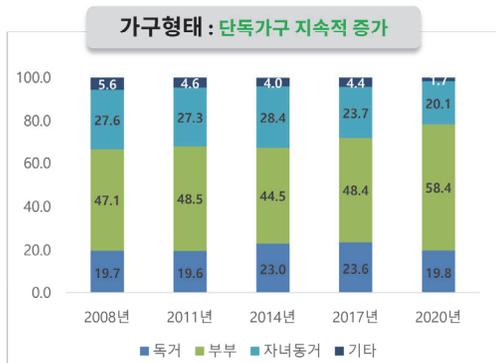
2. 분석 내용



II.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형태

PART.02

1. 노인의 가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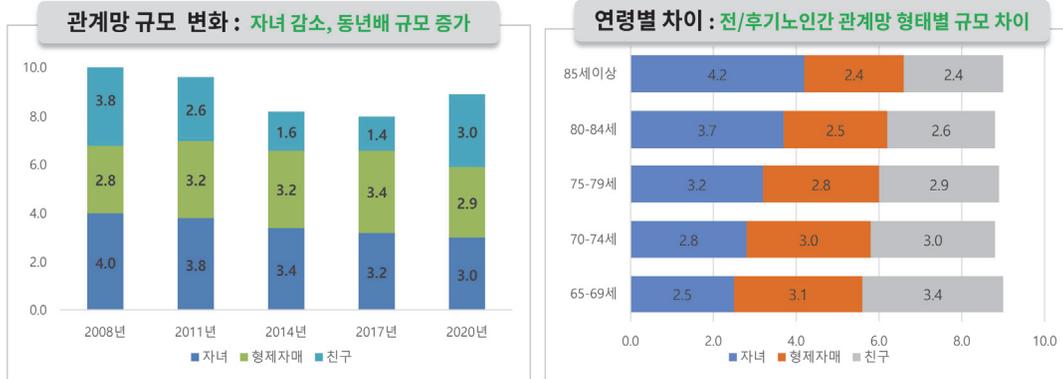


- ❖ 시계열적으로 노인 단독가구(독거 + 부부)의 지속적 증가 ('08년 66.8% → '20년 78.2%) & 자녀동거가구의 감소
- ❖ ('20) 단독가구 비율은 전기노인(75세 미만), 자녀동거가구 비율은 후기노인(75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남
 → 건강 및 기능상태를 바탕으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가구형태 차이 발현

II.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형태

PART.02

2. 노인의 주요한 관계망 규모



- ❖ 시계열적으로 자녀 수는 지속 감소 ('08년 4.0명 → '20년 3.0명) & 동년배 관계로 친구(이웃) 규모 증가 ('11년 2.6명 → '20년 3.0명)
- ❖ ('20) 자녀 수는 초고령 노인(85세 이상), 형제자매 또는 친구수는 65~69세 연령집단에서 높게 나타남
- 자녀 수는 가구형태 변화와 맞물리는 결과 & 형제자매 및 친구 등의 동년배 관계망의 규모 변화는 일정부분 연령효과 측면으로 이해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II.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와의 접촉 실태

PART.03

1.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와의 접촉 실태

✓ **접촉 실태**는 주요한 관계망과의 1) 왕래(대면) 및 2) 연락(비대면)을 중심으로 파악

접촉 실태 변화 : [접촉 방식 변화] 관계망의 전 유형에서 대면보다는 연락 중심으로 변화 (주1회 이상 기준)
[접촉 양상 변화] 혈연(자녀) 중심 접촉은 감소, 친인척 및 친구(이웃) 중심으로 동년배와의 교류 확대



- ❖ 시계열적으로 전 관계망 유형에서 왕래 빈도는 지속 감소, 연락 빈도는 친인척 및 친구(이웃)의 경우 증가 & 자녀는 감소 ('08 83.6% → '20 63.5%(주1회이상))
- 자녀 중심의 교류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동년배와의 관계는 관계 보유율 증가 및 연락 수단 다양화에 따라 다각화되는 경향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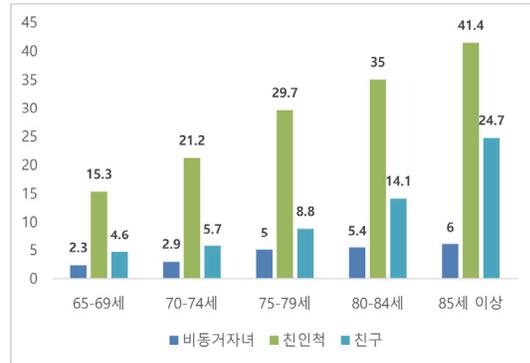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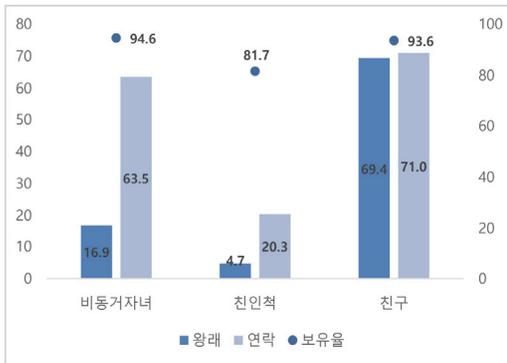
III.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와의 접촉 실태

PART.03

2. 노인의 주요한 사회적 관계와의 접촉 실태

접촉 빈도(주1회이상) : 친구(이웃) > 비동거자녀 > 친인척 순

저빈도 접촉(연 1회 이하) : 80세 이상 집단에서 높



- ❖ ('20) 자녀를 포함하여 노인 대부분은 주요한 사회적 관계망을 보유하고 있음(자녀 > 친구 및 이웃 > 친인척)
관계망의 유형과 상관없이 직접 대면보다는 문자나 전화 등의 수단을 통한 연락 비율이 더 높음. (친구 및 이웃 > 자녀 > 친인척)
→ 동년배 관계로서 친구(이웃)의 경우, 대면/비대면 접촉율이 모두 높다는 점에서 노인의 중요한 관계망으로서 기능함을 유추
- ❖ ('20) 연1회 이하로 연락이 거의 없다는 응답 역시, 관계망 유형과 관계없이 80세 이상에서 두드러짐
→ 연령 증가에 따른 관계망 규모의 축소와 맞물려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 & 적절한 도움 및 개입 필요

IV. 노인의 부양 교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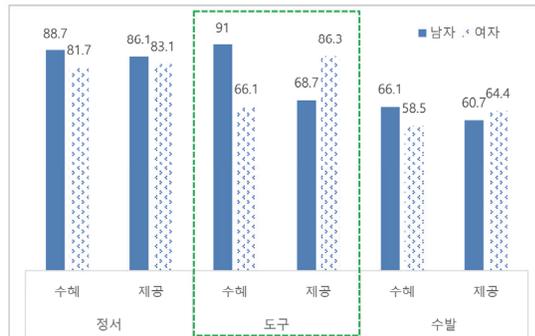
PART.04

1.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 실태

✓ 부양 교환 실태는 1) 정서(고민상담) 2) 도구(가사지원) 3) 수발(돌봄) 4) 경제적 지원(*자녀만 해당)을 중심으로 파악

부양 교환 양상 변화 : 배우자와 상호호혜적 양상 지속

성별 차이 : 도구적 지원은 여성노인 제공 중심 경향



- ❖ 시계열적으로 배우자와의 정서, 도구, 수발 지원은 제공-수혜간 비교적 상호 호혜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 (정서 > 도구 > 수발의 순)
→ 수발 지원률의 감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롯 공적 돌봄 개입확대에 따른 결과로 간주
- ❖ ('20) 단 가사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구적 지원의 경우, 여전히 남성-여성노인간 수혜-제공 격차 발생
→ (수혜-제공 격차) 남성 22.3%, 여성 20.2% → 전통적 성역할에 따라 가사 분담을 여성 역할로 간주한 것에 따른 결과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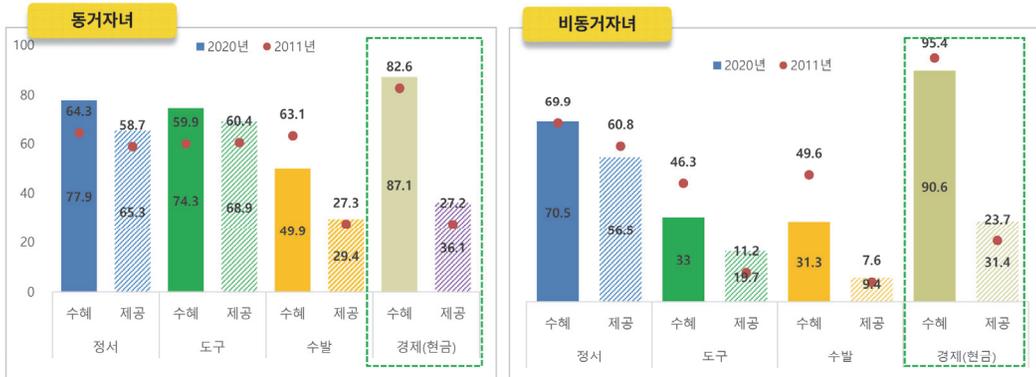
IV. 노인의 부양 교환 실태

PART.04

2.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

부양 교환 양상 변화

: 부양교환 항목에 따라 제공 방향상 상이 & 자녀와의 물리적 근접성(동거여부)에 따른 차이



❖ 시계열적으로 볼 때

- 1) 동거자녀와의 부양 교환은 정서, 도구적 지원 / 2) 비동거자녀와의 부양 교환은 정서적 지원에 대해 상호호혜적
- 3) 경제적 지원은 동거/비동거 자녀로부터 수혜 중심으로 진행 → 은퇴 후 장기화된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간주

❖ ('20) 물리적 근접성 측면에서 볼 때 비동거 자녀보다는 동거 자녀와의 교류가 활발한 경향

→ 동일한 물리적 공간을 향유함에 따라 노인-자녀간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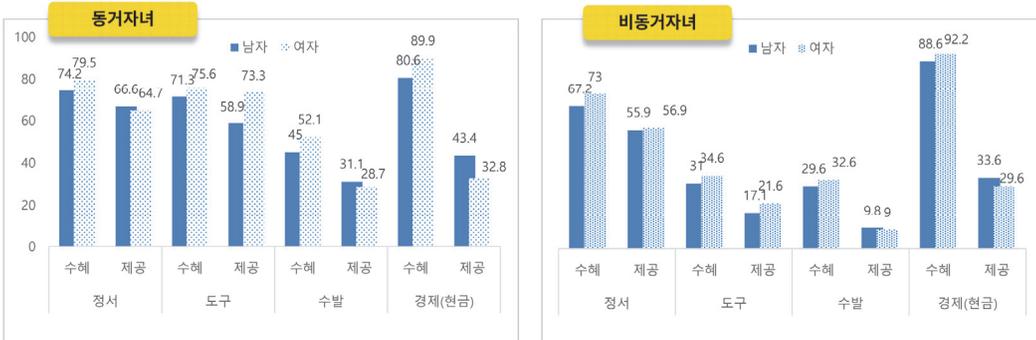
IV. 노인의 부양 교환 실태

PART.04

2. 자녀와의 부양 교환 실태

성별 차이 :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에 비해 성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경제적 지원의 경우 여성 노인의 수혜-제공 격차 큰 편



❖ ('20) 배우자와의 부양 교환에 비해 성별 차이는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음.

다만 경제적 지원 항목의 경우 여성노인의 수혜-제공간 격차가 남성노인에 비해 큼.

(여성노인 - 동거자녀) 89.9%-32.8%, (여성노인-비동거자녀) 92.2% -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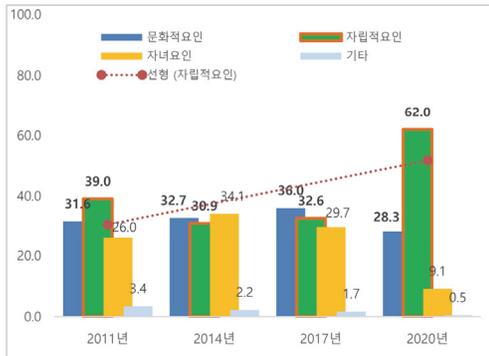
→ 남성노인에 비해 노년기 경제적 의존성이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으로 이해

V. 노인의 사회적 관계 관련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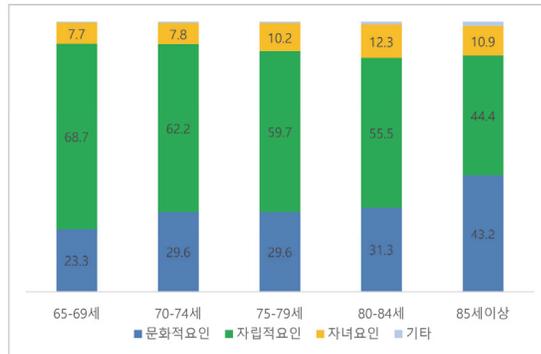
PART.05

1. 가구 형성 가치관 : 단독가구

단독가구 형성 가치관 변화:
시계열적으로 자립적 요인 증가



연령별 가구 형성 가치관 차이:
문화적 요인 vs. 자립적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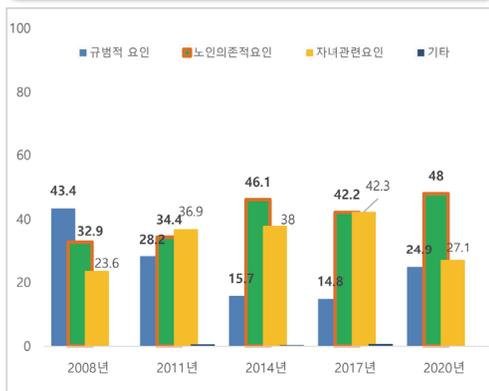
- ❖ 노인의 단독가구 형성은 자발성 또는 자녀와 관련한 상황적 요인에 기초하여 진행
... 시계열적으로 노인의 건강/ 경제적 요건 충족에 따른 자립적 요인에 기인한 단독가구 형성 비율 증가 ('08년 39.0% → '20년 62.0%)
- ❖ ('20) 65~69세 연령집단에서는 '자립적 요인'에 기초한 응답이 68.7%로 약 2/3
vs. 8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자녀의 결혼에 의한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한 응답이 43.2%로 집단간 차이 존재

V. 노인의 사회적 관계 관련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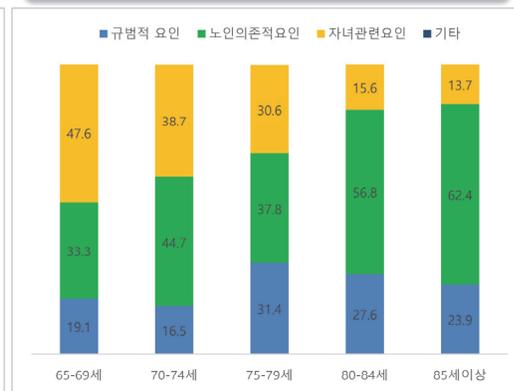
PART.05

2. 가구 형성 가치관 : (기혼) 자녀동거가구

자녀동거가구 형성 가치관 변화:
시계열적으로 규범적 요인 감소



연령별 가구 형성 가치관 차이:
후기노인 집단에서 노인지원 필요성에 의한 동거율 높



- ❖ 노인의 기혼자녀와의 동거는 시계열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당연해서와 같은 규범적 요인에 기인한 응답 감소 ('08년 43.4% → '20년 24.9%) → 이는 노후에 자녀 동거희망 가치관과도 연결
- ❖ ('20) 65~69세 연령집단에서는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거한다는 응답이 47.6%
vs. 8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는 노인(배우자)의 정서 및 도구, 수발 지원 필요에 의한 자녀동거율이 62.4%로 대다수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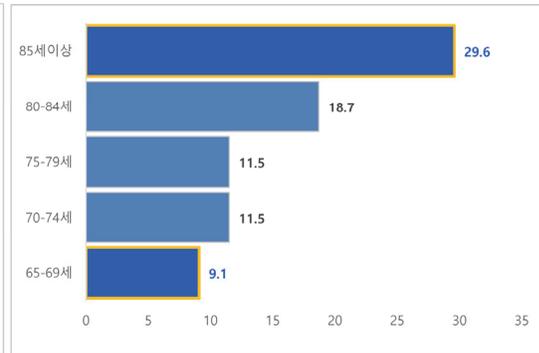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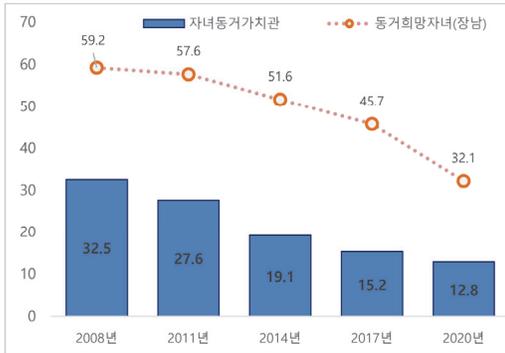
V. 노인의 사회적 관계 관련 가치관

PART.05

3. 노후 부양 가치관

자녀동거 가치관 변화: **시계열적 감소 경향 뚜렷**

연령별 차이: **85세 이상 초고령노인 집단에서 높**



- ❖ 시계열적으로 **자녀와의 동거 희망**은 감소 추이가 뚜렷 ('08년 32.5% → '14년 19.1% → '20년 12.8%)
→ 노인의 **주체적, 자립적 가치관이 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 노후 동거를 희망하는 자녀 중 **장남을 선호**한다는 응답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 ('08년 32.5% → '14년 19.1% → '20년 12.8%)
- ❖ ('20) 노후 자녀 동거가치관의 경우, **연령별 차이가 뚜렷** (65~69세 9.1% vs. 85세 이상 29.6%로 약 3배 정도 차이)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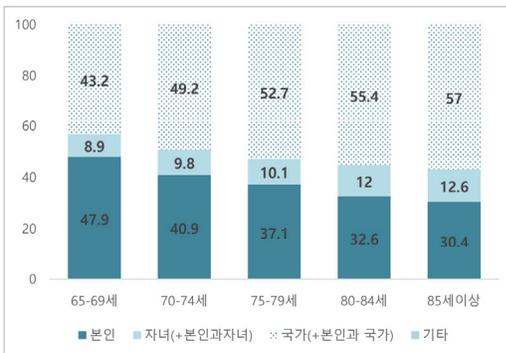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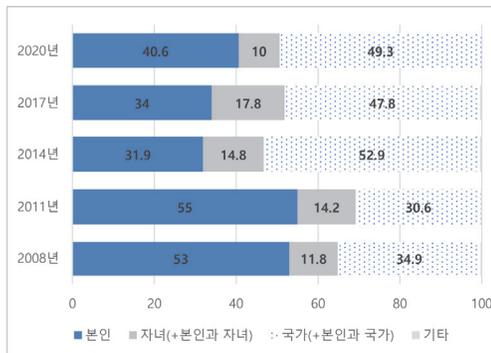
V. 노인의 사회적 관계 관련 가치관

PART.05

4. 노후 생활비 마련 가치관

노후 생활비 마련 가치관 변화:
본인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 증가

연령별 차이: **전기노인 집단에서 본인 마련 가치관 높**



- ❖ 시계열적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 가치관**은 **본인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 증가** ('08년 34.6% → '20년 49.3%)
→ 본인 스스로를 포함하여 자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등 **자립성 강화**
- ❖ ('20) 특히 **65~69세 연령집단**에서 '본인 스스로' 준비하고자 하는 응답이 **47.9%**로 약 1/2 (*자녀라는 응답은 4.7%에 불과)
제도적 지원(사회보장제도)을 통한 노후준비 응답은 **85세 이상 연령집단**에서 가장 높게 제시
(사회보장제도 28.1%, 본인과 사회보장제도 28.9%)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VI. 결과 요약

PART.06

- 1 노인 단독가구(독거 및 부부)의 증가, 자녀 동거가구의 감소 뚜렷
- 자녀 동거 희망률 감소 추이를 고려할 때, 이같은 경향성 지속될 것으로 전망
- 2 자녀 중심의 관계망에서 친구 및 이웃, 지인 등 동년배 중심의 관계망으로 다각화
- 3 배우자와의 상호호혜적인 지원 교환 양상 지속, 단 가사지원의 경우 여전히 성별 격차 존재
자녀와 물리적 근접성에 기인한 지원 교환 양상 차이 & 경제적 교환은 노인의 수동적 의존
- 4 노인의 자립적 요인(건강, 경제적 안정, 개인생활 향유 등)에 따른 단독가구 형성 응답 증가
규범적 요인에 의한 기혼자녀와의 동거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5 자녀와의 동거 희망 감소 & 스스로 노후 대비하고자 하는 응답 증가 ... 전반적인 노인의 자립성 증가
... 단, 관계망의 구조 및 접촉 실태, 가치관 등에 있어 연령별 차이 잔존 (후기노인의 취약성 대두)
... 특히 관계망 협소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사회적 고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적 개입 강화 필요

감사합니다

토론

이윤환 | 아주대학교 교수

김혜령 | 인제대학교 교수

홍선미 | 한신대학교 교수

김범중 | 중앙대학교 교수

유재언 | 가천대학교 교수

김영석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한국 노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관한 토론

이윤환 | 아주대학교 교수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이래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자의 건강상태의 추이와 건강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건강증진,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각종 사업과 정책 및 제도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해 오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노년기 만성질환, 우울증상,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여러 건강 영역에 대한 현황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최근 12년간의 추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건강수준이 향상된 양상을 띤다. 이는 새로 노년층에 진입한 세대가 과거 세대보다 건강이 양호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출생 코호트(연령대)별로 건강상태의 추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고령층으로 갈수록 건강이 좋지 않은 세대가 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데 따른 표본추출에 선택편향이 개입된 영향일 수도 있다. 조기사망 등으로 인한 생존효과가 부각된 현상도 작용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건강상태의 주요 결정요인인 노년기 건강행태의 추이를 보면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하고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수진율은 감소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현재 노인건강증진사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과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국가에서 모니터링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주요 지표와 비교해서 이 같은 건강생활 실천율의 감소 추이가 확인될 경우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실시 중인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새로운 전략 수립과 민관협력 등을 통한 참신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고민해 봐야 한다.

연령별, 성별 건강상태와 건강행태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형평성 측면에서 노년기 삶의 편차를 직시하게 해준다. 사회경제적 수준과 지역에 따른 격차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노년기 건강불평등을 대변할 수 있는 지표 개발과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계층별 건강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신체장애율이 최근 감소한 추이를 보이는데, 장기요양과 같은 공식적 돌봄 서비스 이용률이 동반해서 증가한 양상을 감안할 때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신체기능상태가 실제 개선되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 노인의 시설 거주에 대한 선호도가 건강상태와 직결됨을 고려할 때 노년기에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시사함은 물론 필연적으로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노인을 위해 시설에서도 적절한 양질의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재가와 시설, 보건의료와 복지, 돌봄과 요양 간에 노인을 위한 통합적 제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노인실태조사의 건강 부문에 있어 향후 조사영역과 항목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질병 중심에서 기능 중심 지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노년기에는 질병뿐 아니라 일상기능과 관련된 노쇠, 근감소증, 섬망과 같은 노인증후군의 파악이 중요하다. 또한 기능상태의 주요 지표가 50년 전에 개발

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변화하는 생활상을 반영한 새로운 항목 개발이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 즉 '건강노화 지표(Healthy Aging Index)'와 같은 종합지표의 개발도 고려해봐야 한다. 방법론적으로도 연령표준화 분율, 시계열분석, 다수준분석, 회귀불연속 설계 등을 포함한 고급 분석방법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추이를 식별해내고, 관련요인을 규명하며, 정책 및 제도 등 환경변화가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노인보건정책 수립과 제도 평가에 정밀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돌봄, 간호, 요양’에 관한 토론

김혜령 | 인제대학교 교수

본 한국노인의 삶과 인식변화 포럼에서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고를 근거로 1. 건강고위험노인의 선별 및 집중관리 2. 노인을 돌보는 노인의 건강 3.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 In Place)와 요양서비스 세가지 측면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1. 건강고위험 노인의 선별 및 지속관리

노인실태조사(2008년, 2011년, 2014년, 2017년, 2020년) 결과에 따르면, 한 개 이상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노인은 81.8%-89.5%이며, 세 개 이상 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노인도 27.8%-51.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울유증상자(13.5%-33.1%),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대상자(19.9%-60.9%), IADL제한자 (6.6%-16.6%), IADL+ADL제한자(5.6%-8.7%), 인지기능 제한자 (14.5%-31.5%) 등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들이 건강상 취약성의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인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노인건강의 문제들을 노인인구 특성에 맞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다음 네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고위험군 선별을 위해 포괄적 노인건강사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건강문제는 평생을 통해 축적되고 서로 연관을 가지고 악화되어 복합적인 문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노인건강사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노인의 건강문제는 노인 특성에 맞게 노인증후군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만성질환이나 IADL과 ADL제한, 그리고 인지기능 제한과 같은 문제를 노인의 특성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건강고위험군의 자료를 기반으로 건강고위험군의 선별 기준을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고위험군 노인을 조기 선별 및 지속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선별된 노인들은 등록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동네 의원까지 포함한 지역사회 내 지속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건강고위험 노인들이 가능한 오래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잔존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보존을 위한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2. 노인을 돌보는 노인의 건강관리

노인실태조사(2017년, 2020년) 결과에 따르면, ADL/IADL 1개 이상 제한자의 돌봄제공자의 1순위는 동거가족으로 69.0%(2017년), 74.5%(2020년)이며, 2순위는 비동거가족으로 36.2.0%(2017년), 39.3%(2020년)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들의 돌봄을 제공하는데 가족들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DL/IADL 뿐 아니라 치매환자 및 뇌졸중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시점에서 노인을 간병수발하는 가족들 중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노인을 돌보는 노인에 대한 전국적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다음 네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을 돌보는 노인 또는 노인근접인구의 간병수발 부양부담을 사정해야 합니다. 이 사정결과에 따라 노인이면서 가족의 간병수발로 고통받는 노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노인을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의식 및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셋째, 현재 노인부양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및 부양문제 상담 제도의 활용 및 개선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고 이를 기반으로 노인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간병수발교육 및 훈련 서비스 활용에 대한 파악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노인을 돌보는 노인인구 요구에 맞춘 복합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이들 노인을 간병수발하는 노인인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장기요양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2017, 2018), 가족상담지원서비스(국민건강보험공단, 2019-), 치매가족지지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중 e-희망교실(서울광역치매센터, 2016), 희망메신저(서울광역치매센터, 2015), 헤아림(중앙치매센터, 2015)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노인을 돌보는 노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촉구되길 바랍니다.

3.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 거주(Aging in Place)와 요양서비스

노인실태조사(2020년) 결과에 따르면, 건강유지시 희망 거주 형태가 •현재 집 계속거주 83.8% •환경이 좋은 집 이사11.2% •서비스제공주택4.9%이며, 건강악화된 경우에도 •현재 집 계속거주 56.5% •가족합가 근거리이사 12.1% •서설거주 31.3%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들이 지역사회 계속거주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의 지속거주와 요양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네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나라 노인의 지속거주(Aging in Place)를 원하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노인 개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 당사자의 이유를 알고 이를 반영하여 지속거주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의 지속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노인의 지속거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노인건강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고, 국외의 탈시설화 정책을 근거로 한 우리나라의 지속거주를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노인뿐 아니라 노인가족 및 전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지속거주 정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셋째, 노인의 지역사회 거주에 맞는 요양서비스가 확충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지속거주(Aging in Place) 상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고,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보다 더 빠르게 장기요양보험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향후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알차고 합리적인 요양서비스의 확충은 더욱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에 관한 토론

홍선미 | 한신대학교 교수

-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이해하고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커뮤니티케어를 비롯한 초고령사회 대비 정책 마련을 위한 실증적 자료로 의미가 있음. 특히,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노인의 건강, 소득, 가족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이 분야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함. 특히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하위집단별 실태자료를 근거로, 지원서비스 확대와 연령대별 특화서비스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 면접조사를 진행한 노고가 컸을 것으로 예상함. 2020년 3~6월 자료수집 시점의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나 시설이용 관련 조사 자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음. 800만이 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1만여 명의 대표성의 한계가 있으며, 성별과 연령대를 제외한 하위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전반적인 노인인구 실태조사로서의 의미가 크나,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과 같이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은 노인집단의 현황 파악은 다소 미흡할 수 있어 추가적인 주요 노인의 하위집단별 생활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보완할 필요 있음.

1. 한국 노인의 건강과 지역사회 계속 거주

■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관한 의견

- 주관적 건강상태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비율이 증가한 이유(건강생활실천이나 영양관리 등)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실태조사 주요 결과의 함의

- 연령별 70대 초반 인구집단이 건강군에서 저위험군으로 전환하고 70대 후반 인구집단이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70대 초반에 예방적 건강생활관리를, 70대 후반에 만성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집중하면 연령대별 건강증진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을듯함.
- 여성일수록 고령일수록 중복의 만성질환과 우울감이 높은 반면 운동 권장수준 미달이나 영양관리개선 필요도는 높게 나타남에 따라, 고령여성층을 집중건강관리군으로 타겟팅하여 신체활동 및 심리지원을 통한 통합웰빙케어 제공.
- 연령별로 80세 이상은 운동부족과 영양개선 필요도가 높음에 따라, 후기 고령자에 대해서는

만성질환관리 뿐 아니라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재가 운동프로그램과 방문영양관리 및 섭식지원 확대 등 복합적인 돌봄 패키지를 제공. 지역사회 내 영양식 지원 대상이 일부 저소득가구 어르신으로 한정함에 따라, 보다 보편적인 운동 및 영양 등의 건강생활 지원 사업이 확대될 필요 있음. 2020년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에 노인 맞춤형 식사지원 및 영양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시행중으로 그 효과성을 근거로 전국 확대 고려.

한편, 75세 미만 전기 고령자에 대해서는 예방적 건강생활실천활동을 제공하여 건강군 유지율을 높이도록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도록 함.

- 인지기능제한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 등의 보편화된 주민 건강인프라를 통해 인지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보급 필요.
- 동거 또는 비동거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 필요.
- 건강 악화 시에도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aging in place 희망 비율이 56% 이상으로 나타나,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일상생활 및 건강 지원을 보편화할 필요성과 현재 거주지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주택개조 및 주거지원서비스 확대 필요성 확인.

2. 한국 노인의 소득과 경제 및 사회활동 실태 관련한 의견

■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관한 의견

- 노인의 개인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사업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기여가 높다는 점은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 증가라는 긍정적 변화로 파악할 수 있음.
- 65세 이후에도 생계비 마련의 목적이 주요 경제활동 이유라는 점에서, 노인기초연금 등 노인 소득보장의 기제의 보충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을 연령대별로 제시하였으나, 소득계층별 성별 차이가 유의미할듯함.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자료상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률이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낮아진 이유에 대한 분석 필요.
- 공공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친목도모, 식사, 건강, 취미여가 외의 정서지원, 자원봉사활동,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도가 낮은 것에 대한 욕구 대비 확인하여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

■ 실태조사 주요 결과의 함의

- 75세 이후 노인의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비율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후기 고령자를 위한 고령친화 직종개발과 후기 고령기 노인 대상 사회적 일자리 확대 필요,
- 80세 이상과 85세 이상 노인집단에서 여전히 취미여가활동이나 친목단체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점은 노인활동프로그램의 연령대를 상향하고 80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취미여가활동이나 모임을 노인복지관이나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더욱 확대할 필요 있음. 노인복

지관의 80대 초반이용자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이용자욕구에 현재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됨.

-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며 공공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은 60대 후반과 70대 초반 노인을 위한 공공여가문화시설의 접근성 확대 방안 마련.
- 소득과 사회참여 및 여가활용, 사회공헌 및 마을공동체 기여 등 가치와 실리를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노일일자리개발의 과제 파악됨.
- 정보화기기 활용도가 낮은 80세 이상 노인의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고령 친화적 비대면 프로그램개발 필요.

3.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관련 의견

■ 실태조사 자료 분석에 관한 의견

- 노후생활비 마련에 있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기대 증가로 제도적 지원에 대한 충분성이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없을지에 대해 고려.
- 사회적 관계에서 친구(이웃)의 왕래 및 연락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 동료집단을 통한 사회적 관계망 유지 기능의 함의를 확인.
- 규범적 가족(자녀) 동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단독가구와 비혈연 동거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거형태의 노인주택에 대한 심리적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커뮤니티케어에서 노인 공동주택의 보급 활성화의 함의 제공.

■ 실태조사 주요 결과의 함의

- 배우자 및 자녀 부양교환 실태에서 연령대별로 수혜와 제공 비율의 차이가 유의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특히 고연령대의 배우자 및 자녀 부양 제공비율이 높은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적 돌봄을 통한 지원 확대 필요.
-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로 인해 동거 자녀에 의존하던 도구적 지원과 수발에 대한 사회적 돌봄지원체계 강화 필요.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에 관한 토론

김범중 | 중앙대학교 교수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발제문들은 노인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결과를 압축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전 조사에 비해 노인생활실태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토론자가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생활실태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여겨진다. 연령주의나 연령 차별 현상에서 보듯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노년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본 조사 결과에서는 다양한 긍정적 변화의 신호를 목도할 수 있었다. 건강·돌봄의 측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노인층 건강상태가 호전되었고 공적 돌봄서비스도 활성화되었으며 거주지역에서 노후를 맞이하고자 하는 노인의 욕구 증대도 명확해졌다. 경제·사회생활 측면에서는 경제적 자립이 확대(소득증가)되었고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아졌다.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도 다양화되었고 노인의 문화·여가 참여비율도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사회관계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짐으로써 독립적 생활 욕구가 커졌고 노후생활비 마련도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에 토론자는 이러한 노인생활실태 조사결과들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살피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노인층을 바라봐야 함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에이징노믹스의 시각으로 노인층의 증가가 가정·사회·경제적 부담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활성화, 생산가능인구 확대, 산업수요 창출,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발 등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 긍정적 시각의 확대를 위해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고용·소득 측면이다.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고, 노인 부양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향후 의료비 지출로 인한 사회적 부양부담 또한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령층 노동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히, 2020년부터 노년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득과 학력 수준이 기존 노인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더불어 전문성도 보유한 신노년층을 노동시장에서 계속 고용 형태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부족하다. 이에 민간영역에서 고령층의 고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년연장 시행, 고령자 계속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임금구조 개편 등이 그러한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영역에서의 고령층 고용유지 및 확대는 단기적으로 노동시장 구조와 맞물려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확대도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와 직종별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고령층 고용연장은 상당수의 노인들 스스로도 원하는 바이지만 생

산가능인구를 적절히 유지하여 노인부양비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고용 연장의 결과로 나타난 소득증대는 노후빈곤을 조정과 공적이전소득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돌봄·건강·기술환경 측면이다. 노인층의 증가는 의료, 돌봄 수요의 확대를 의미한다. 물론 지금도 전통적 의료 및 돌봄제도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비스의 한계와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타재가복지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새로운 체계 개편을 모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서 돌봄 수요를 적절히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코비드-19 상황의 비대면 돌봄 시대에 스마트에이징을 활용한 돌봄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돌봄시장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예: AI 스피커, 원격진료, 홈케어산업 확대).

마지막으로, 문화·여가·교육 측면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략 80% 이상의 노인들이 여가 문화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신노년층이 노인층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문화 여가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젊은 세대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공교육 시스템을 평생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며 대학의 노인 평생교육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존폐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대학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추어 지역 사회의 노년층 및 중년층을 대학교육 틀에 포함시켜 교육수요를 확대하게 되면 대학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지자체별 노인특화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체육문화 예산도 증가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 여가 문화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을 중장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결국 노인층의 증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도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므로, 노인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사회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토론: 가족 및 사회관계의 주요 변화 및 특징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발표3: 이선희)

한국 노인의 삶과 인식 변화 포럼(2021.8.18.)
토론자: 유재언(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Contents

- 1 가속, 심화
- 2 감속, U턴
- 3 돌발: 코로나19
- 4 미래: 뻗은 미궁





1. 가속, 심화

- ▶ **인생의 동반자 부부:** 80대 초반 연령대까지 주류 가구형태
건강, 돌봄, 소득과 소비, 주거를 공유하므로 정책 및 서비스 대상, 수급권 판정에 고려
- ▶ **가족 내 관계망:** 여성(아내, 어머니) 중심화, 남성(남편, 아버지) 소외
가정, 지역사회에서 남성의 관계망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 ▶ **전통적 부양가치관 약화:** 자녀(특히 장남)와 동거하거나 돌봄을 받는 노인 감소
현실적 이유도 있지만, 전통적 부양가치관까지 거의 소멸
전통적 부양가치관을 대신할 새로운 가치관은 무엇일까?
- ▶ **과거부터 노인(80세 이상):** 가족, 사회적 관계 축소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가족 및 사회관계의 주요 변화 및 특징(가천대 유재언)



2. 감속, U턴

가족 및 사회관계의 주요 변화 및 특징(가천대 유재언)

2. 감속, U턴

- **가족 → 사회(관계망 규모, 빈도):** 자녀, 친척과 접촉 감소와 반대로, 친구(이웃)과 관계망 증가
- **가족 내 노부모 영향력 증가:** 자녀에게 돌봄받는 노부모 감소
 자녀에게 고민상담, 가사지원, 경제적 지원하는 노인 증가(자산의 영향력)
- **1인가구 감소:** 2017년 23.6% → 2020년 19.8%(참고: 2008년 19.7%)
 중장기적으로 증가세로 다시 전환될 가능성 높지만, 원인 파악 및 단기변화 모니터링 필요

가족 및 사회관계의 주요 변화 및 특징(가천대 유재언)



3. 돌발: 코로나19



- ▶ **관계망 양과 질 전환:** 관계망 규모와 대면 접촉 감소 → 사회적 관계망 규모와 비대면 접촉 증가
- ▶ **역동적 가족관계:** (동거)부부 관계 강화, 노부모, 조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 손자녀 증가
- ▶ **1인가구 감소:** 이혼 감소, 썬더루족 증가
- ▶ **코로나19의 영향력:** 코로나19로 비롯된 관계 변화가 얼마나 지속, 감소, 확대될 것인가?



4. 미래: 뻗은 미궁

가족 및 사회관계의 주요 변화 및 특징(가천대 유재언)

4. 미래: 뻗은 미궁



- **인생의 동반자 부부:** 80대 초반 연령대까지 주류 가구형태
 건강, 돌봄, 소득과 소비, 주거를 공유하므로 정책 및 서비스 대상, 수급권 판정에 고려
- **관계망 확장:** 가족(자녀, 친척) → 사회(친구, 이웃)
 실시간 대면 → 비대면, 디지털 병행(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속도와 수준: 정보화 역량 향상이 관건
- **1인가구에 가족관점 적용:** 1인가구 당장은 감소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다시 증가 가능성 높음
 혼자 살지만 따로 사는 부모-자녀 간 정서, 가사, 돌봄, 경제적 왕래 강화
 증여, 상속에 대한 세제, 수급권(주택 청약 등) 이슈로 부각
- **노년기 세대관계 확장:** 자녀 → 손자녀(돌봄) → 증손자녀(상속, 증여), 백세노부모(돌봄, 경제적 지원)
- **연령, 코호트, 시기효과 혼재:** 동시대 다양한 생각, 경험, 상황의 노인
 나이가 들면서 생각, 경험, 상황이 달라져가는 노인

가족 및 사회관계의 주요 변화 및 특징(가천대 유재언)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한국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

김영석 |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사)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에서 주최한 본 포럼에 토론자로 초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토론에서는 「2020 노인실태조사」를 토대로 한국 노인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첫째,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율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실태조사」는 2008년 조사부터 2020년 조사까지 노인의 평생학습참여 실태를 꾸준히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역대 「노인실태조사」에서 보고된 65세 이상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08년 13.3%, 2011년 6.7%, 2014년 13.7%, 2017년 12.9%, 2020년 11.9%입니다. 이는 2020년 25-79세 한국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40.0%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고 하겠습니다(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0).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한데 그 중 대표적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66세 이상 국민과 18-65세 국민의 상대적 빈곤율(전체 국민의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의 차이는 31.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통계청, 2020). 아울러 「2020 노인실태조사」에서도 노인의 경제 활동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생계비 마련(73.9%)이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노인은 생계비 마련을 위해 직업능력 향상이 꾸준히 필요하지만, 「2020 노인실태조사」 중 노인의 학습활동참여 영역별 조사에 의하면 ‘취업/직업’ 분야는 ‘기타’영역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참여영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노인대상 직업능력향상교육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을 통해 50세 이상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매년 전국의 약 20개 시설 및 기관을 「60플러스 교육센터」로 지정 및 위탁 운영하고 직업관련 교육(크리에이티브, 디지털전문강사, 시니어 액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의 확보 및 지자체의 관심 속에서 노인대상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의 평생학습참여 현상을 이해할 때 노인의 다양성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교육학에서는 성인 인구의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직업유무 등의 특성이 그들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꾸준히 보고되었습니다(김현수, 2017; 최돈민, 이세정, 김세화, 2008; 최운실, 2006). 「2017 노인실태조사」의 원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된 김영석(2019)에 따르면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여부에는 성별, 연령, 학력, 건강상태가, 평생교육 참여영역에는 성별, 학력, 연가구소득이, 평생교육참여기관에는 성별, 연령, 학력, 연가구소득 등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가구소득 제1, 2분위 집단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활용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제4, 5분위 집단은 시군구민회관/동주민센터 그리고 공공 및 민간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김영석, 2019). 이렇듯 노인집단 안에서도 평생교육 참여현상, 참여 프

로그램 영역, 참여기관에 노인의 성별, 학력, 연령, 연가구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노인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관, 경로당은 연구가소득이 낮은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무료교육이나 프로그램 수강료가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셋째, 평생학습 참여 소외 노인집단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평생교육참여 양상을 보면 저학력, 저숙련직종 종사자, 고령층 집단에서 평생교육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김현수, 2017). 그러나 「2020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집단 안에서는 이런 경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노인집단 안의 대표적 평생교육 참여 소외집단으로 디지털 비문해자에 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습활동 실시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다음으로 매체활용(TV, 라디오, 인터넷 강좌, 컴퓨터·인터넷 활용 학습, 인쇄 매체 등)이 17.0%로 조사되었습니다. 매체활용의 응답비율은 「2017 노인실태조사」에 비해 14.8%나 높아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줄어든 상황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매체를 활용한 평생학습참여는 미래 사회에서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매체활용을 통한 평생학습참여가 지속해서 늘어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집단의 디지털 비문해율은 높다고 하겠습니다. 김세진 부연구위원님의 발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65~69세 연령집단과 70세 이상 연령집단을 비교했을 때, 정보화 기기 활용능력의 차이가 큼니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노인복지관 및 문화센터 등으로의 이동이 어렵거나,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외출이 어려운 노인집단들에게는 매체를 활용한 평생학습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문해교육의 확대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 소외집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 김영석(2019).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의 평생교육 참여양상 분석: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노년학**, 29(4), 959-976.
- 김현수(2017). 평생학습 자발적 비참여 양상의 사회구조적 특성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23(1), 55-78.
- 최돈민, 이세정, 김세화(2008). 한국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4(4), 29-55.
- 최운실(2006). 한국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 특성 및 관련 요인 분석. **평생학습사회**, 2(1), 1-35.
- 통계청(2020). **2020 고령자 통계**.

